

영국, 일본서 확산 미국 독감 긴장

11월~2월 정점, CDC 인력 감축, 정부 섣다운에 대응 능력 우려

지난해 기록적인 독감 시즌으로 병원과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겪은 가운데, 보건 당국이 다시 찾아올 독감의 확산에 긴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어린이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독감 발병이 조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또한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확진자 급증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고 '독감 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올해 독감 얼마나 심각할까

독감은 매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CDC는 지난 8월 말 이번 시즌이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연령층에서 특히 심각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로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지난해와 같은 A형 H1N1, H3N2와 B형 독감이다. 미국전염병학회 펠로이자 워싱턴주 에버렛의 프로비던스 지역

의료센터 내과부장 조지 디아즈 박사는 "아직 어떤 변종이 우세할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지난해처럼 강한 변종이 다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올해도 중등도 예측이 빛나면 또 한 번의 '심각한 시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지역에서는 아직 시즌 초반이라 확실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독감에 걸린 사람이라도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노인층과 면역저하자는 여전히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독감 백신 언제 맞는 게 좋을까

독감의 심각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이러스 변종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과 공중보건 인프라의 강도에도 달려 있다. 래스무센은 "올해 독감 확산은 바이러스 자체보다 사회적·정책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시즌에는 어린이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19~2020 시즌 대비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올해도 이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밴더빌트대학 메디컬센터 감염병학 교수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미국에서 두 시즌 연속 '초강력 독감'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렇다 해도 백신 접종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이 독감 예방접종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며 "그 시기에 맞으면 2월~3월까지 이어지는 독감 시즌 전반에 걸쳐 충분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

보통 독감은 미국에서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월에 정점을 찍는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도 같은 시기에 함께 늘어난다. 그러나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력 감축과 연방정부 섣다운 사태로 인해 올해는 독감 확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DC의 최신 독감 보고서는 9월 20일로, 당시까지는 활동이 '최소 수준'이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대의 바이러스학자 안젤라 래스무센은 CDC의 독감 감시 체계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독감 확산의 규모와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백신 보급이나 홍보 캠페인 같은 실질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전국 단위의 대응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독감은 특히 심각했다. CDC에 따르면 2024~2025년 독감 시즌 동안 약 110만 명이 입원했으며, 이는 지난 1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독감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도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CDC의 예비 평가에 따르면, 해당 시즌 동안 독감 관련 사망자는 3만8천~9만9천 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어린이 사망이 두드러졌는데, 총 280명의 아동이 독감으로 숨졌으며 이 중 최소 3명은 일반적인 독감 시즌이 끝난 6~7월에 사망했다.

POS 렌탈 서비스



**초기 비용 없이
설치하고
인건비 절약까지**

**최신형 카드 단말기
'블루포인트 플러스'
무료렌탈!**

OTC 카드 결제 OK!
(단말기 설정 도와드려요.)

원페이먼트 서비스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 ✔ 낮은 카드프로세싱 수수료
- ✔ 다음날 결제 금액 입금 서비스
- ✔ Cash Discount Program (CDP)
(카드 수수료 0%! 수익은 그대로!)
- ✔ Merchant Cash Advance (MCA)
(신용점수 없이, 카드 매출만으로 신청 가능)

One Payment Services 상담전화 (조앤 이)

213.407.8778

www.onesvc.com

13191 Crossroads Parkway North Ste. 230
City of Industry, CA 9174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김종진

내과

한국과 미국 20년 이상 임상 경력 전문의



Dr. 김종진
Jongjin Kim, M.D.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 ▶ 존스홉킨스 협력 GBMC 내과 레지던트 수료
- ▶ 현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최고의 의사보다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치의를 찾고 계십니까?
빠른 예약 시스템! 양질의 진료!
정확한 진단과 추적관리!
이제 Dr. 김종진과 함께 건강을 계획하세요!

진료 과목

- 급만성 내과 질환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 종합검진 (혈액, 소변검사, 심전도, 폐기능)
- 비만 / 체중 관리 클리닉

김종진 내과 #200



5471 La Palma Ave Suite 200, La Palma, CA 90623

문의상담 **714.752.6088**
환영 PPO/비보험